

오피니언

특별기고

김일평



“영산강에 강물이 넘실거리는 것만 봐도 좋습니다. 이제야 영산강이 강다운 강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 놓았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느낌입니다.”

최근 영산강 현장을 방문한 주민들의 반응이다. 현장을 직접 둘러본 주민들은 영산강의 달라진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특히 70년대 이전 영산강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은 “하구둑이 생기기 전보다 영산강이 더 멋있어졌다”며 찬사를 보낸다.

영산강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했던 책임자로서 이 같은 주민들의 찬사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 동안의 합들었던 기억들이 찬사 한마디에 모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가 흐른 지금, 영산강의 모습은 이전과는 360도 달라졌다.

우선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 늘 강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메말라 있던 강이 맑은 물이 넘실대는 강으로 탈바꿈했다. 광주와 나주 영산포 등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심은 물론 영산강 어디를 가도 강물

이 넘실댄다. 이는 승촌보와 죽산보 등 2개의 친환경 가동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승촌보는 광주천 합류지점에서부터 하류로 10km쯤 떨어진 광주시 남구 승촌동에 위치하고 있다. 나주평야의 쌀알을 형

넘실거리는 영산강을 바라보며

상화한 승촌보는 인근에 위치한 10만여명의 공원 등과 어우러져 벌써부터 이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승촌보의 영향으로 광주천 합류지점까지 2~3m의 수심이 유지되면서 광주 인근에서도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승촌보에서부터 하류로 20km쯤 떨어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에 위치한 죽산보는 지난 8일 5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 한 가운데 개방행사를 가진 바 있다. 당초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죽산보의 명성이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파로 크게 불뛴다.

특히 죽산보는 4대강사업으로 탄생하는 전국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을 갖추고 있다. 황포돛배와 왕건호의 운항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강은 또 이전에 비해 홍수에 크게 강해졌다. 늘 홍수피해의 위험을 안고 살았던 영산포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에 안전한 강’은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다.

수십년동안 범람이나 침수라는 단어를 곁에 끼고 살았던 영산포 지역 주민들에게 올 여름은 특별했다. 준설과 제방 보강 및 신설을 통해 영산강이 홍수에 안전한

강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남산의 절벽에 해당하는 양의 퇴적토 준설을 통해 이전보다 물 그릇을 10배 이상 키우면서 영산강의 홍수위까지 크게 떨어졌으며, 영산포 바로 상류에는 60만평 규모의 강변저류지도 만들어졌다.

제방도 이전에 비해 한층 더 튼튼해졌다. 상단 독마루의 폭을 넓히고, 제방 경사면을 이전에 비해 완만하게 만들어 제방 붕괴 등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또 제방이 없어 매년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피해를 겪어야 했던 나주 구진포 인근에 2.7km의 제방도 새로 만들었다.

고수부지에 있던 모든 농경지를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담양에서 목포까지 자전거도로도 탄생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영산강으로 다가가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이 다시 주민들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9월 익산국도관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명품 영산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 영산강사업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요청해왔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가 큰 힘이 됐고, 결국 그 힘이 영산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후에 제대로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익산국도청 직원들은 주민들이 보내주는 찬사에 자만하지 않고 명품 영산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다시 살아난 영산강을 가꾸는데도 앞장설 것이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F1 오늘 개막, 이제 ‘성공 질주’만 남았다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오늘 영암에서 개막된다. 14~15일 이틀동안 예선을 거쳐 16일 정오 슈퍼레이스 결승이 끝나면 이날 오후 3시 대망의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선이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F1에는 20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3일 동안 세계 3대 메인 스포츠를 시청하기 위해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된다.

전남도와 F1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 1년 간 원활한 대회 운영과 교통 편의, 숙박시설 확보, 마케팅 및 스폰서 유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F1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티켓 판매만 해도 상하이(160억 원)·말레이시아 대회(130억 원)보다 많은 200억 원을 넘어섰다. 80만 원이 넘는 최고가 좌석인 메인그랜드스탠드(1만6000석)의 경우 85%가 채워졌다. 대구세계육상선

수권대회의 입장료 수익 100억 원보다 2배나 많은 것이다.

특히 이번 F1에는 김홍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내외 정·관계, 경제계 거물급 인사 등 450명이 대거 찾아 ‘세계 경제·외교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영암과 전남을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지난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통 편의와 숙박시설도 확실히 개선됐다고 한다. 대회 기간 중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등을 임시 개통하고, 기번차량과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해 관람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목표 마케팅 및 스폰서 유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F1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티켓 판매만 해도 상하이(160억 원)·말레이시아 대회(130억 원)보다 많은 200억 원을 넘어섰다. 80만 원이 넘는 최고가 좌석인 메인그랜드스탠드(1만6000석)의 경우 85%가 채워졌다. 대구세계육상선

수권대회의 입장료 수익 100억 원보다 2배나 많은 것이다. 특히 이번 F1에는 김홍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내외 정·관계, 경제계 거물급 인사 등 450명이 대거 찾아 ‘세계 경제·외교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영암과 전남을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UEA 광주정상회의 성과 일회성 안 돼야

〈도시환경협약〉

지난 11일부터 3일간 광주에서 열린 ‘2011 도시환경연합(UEA) 정상회의’는 대체로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를 전 세계인에게 민중, 인권, 평화의 상징도시로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환경도시로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광주정상회의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5대주 78개 해외도시와 세계은행 등 12개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말 그대로 지구촌 대표들이 광주를 찾은 셈이다.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특히 의전과 프로그램 운영, 홍보는 물론 숙소, 음식 등도 준비를 철저히 해 정상회의를 차질없이 마무리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례를 거의 없는 광주시로서는 대단한 성취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경례가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지구의 관심사인 도시환경문제 연구와 해법 도출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도시환경연합 회원도시 상호 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경험을 공유한다는 등의 내용의 ‘광주 유니버시아드’를 이끌어 낸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둔 여러 성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광주가 세계 도시환경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

광주정상회의에서 맺은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와 인맥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는 광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모처럼 얻은 좋은 경험과 성과가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고칼럼



서달원

얼마 전 공동체 기도모임에서 가을 나들이(성지순례)를 계획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랫마을(2번지 환우 공동체) 식구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두 차례 다녀오는 아와 나들이도 멀리 갈 수는 없고 거리, 일정을 짧고 단순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건강이 그래도 좋으신 분들은 조금 멀리 가셨으면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거동이 불편한 다른 분들 생각해 주장을 강하게 펴지는 않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버스 2대로 나주에 다녀오

토요 시장에서 배운 삶

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깥나들이에 마음이 들뜨셨는지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순례지 둘러보고 나서 오는 길목에 장흥토요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버스를 천변주차장에 세워두고, 우르르 몰려가 시장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필요한 것 가지 물건들을 고르고 했습니다.

매주 공연 마당이 마련되는지, 공연장 한편에 서서 공연을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삼오오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드신다며 막걸릿집에 들어가신 신자들이 들어오라고 손짓으로 부릅니다. 땅콩 샐러드 집에 가 먹으라고 비닐봉지를 내미는 신자분들 마음에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발 시각에 일이 터졌습니다. 주차장에서 거리가 멀지 않았고, 단체로 이동하는 길이라서 별일 있을까 싶었는데, 출발 시각이 되어 인원점검을 해보니 한 분이 안

계셨습니다. ‘성자 청소부’ 할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 간혹 정신이 흐리시지만 그래도 낮 시간에는 누가 보든 안보든, 성당 이곳저곳을 빙자투루 돌고 계시는 분, 다른 때는 나들이에 따라나선 적이 없었다는데 이번 여행에 따라와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시장 구경 중이시겠지! 급방 오시겠지! 하며 몇몇 분이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아차! 큰일이다.’ 그때부터 1시간이 넘도록 신자들이 몰려가 시장을 몇 바퀴, 돌고 또 돌고, 이동거리를 넓혀서 읍내까지, 가게마다 들어가서 혹시 못봤느냐 물었지만 감감무소식, 심지어 물가까지 마음 졸이며 찾다가 끝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마침 운동 나오셨던 지역 신부님까지 나서서 찾았다고 이리저리 연락해 주셨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흥 속록도성당 주임님부)

기고



임내현

미국 금융 1번지 월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발단이 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시위는 실업자, 노동자 등이 가세하고 유럽 각국으로 확산해 조급을 보이면서 세계적 핫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상당수 은행, 투자회사가 도산하는 등 최대 금융 위기를 맞아 정부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긴급 투입해 급한 불을 끄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머디스 등으로부터 신용등급을 강등당하고 국민 세금으로 겨우 살아난 미국의 금융권이지만 정작 위기를 불러온 월가의 상위계층은 여전히 매월 수천만 달러를 챙기며 배를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월가의 시위는 부도덕한 금융자본과 이를 옹호하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미국 월가는 자본주의의 상징이다. 결국 이번 월가의 시위는 탐욕과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저항이며 금융만이 아닌 그릇된 자본주의에 대한 항거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성장 못지 않게 강조되었던 분배는 현 정부에 들

어 와 크게 약화되었다. 여러 통계를 통해 소득불균형과 부의부 빈익빈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자주 접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입에서 거친 자를 더 배불리 해주는 정책뿐이라니, 1% 상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주변 인물들의 권력을 남용한 부정부패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만 되면 불법투기, 세금 포탈로 재산을 축적한 정황들이 포착된다. 기업주들도 틈만 나면 비리로 수사를 받았거나 구속이 됐다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보듯 기업이 어렵다고 정리해고를 통해 풀지에 다수의 근로자를 실직시키면서도 정작 수백억, 수십조원

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을 위기 극복에 내놓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균형 잡힌 분배, 타인을 존중하는 배려가 없는 성장은 언젠고 터질 시한폭탄과 같다.

전 세계 진보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 때문에 월가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월가시위는 이집트·스페인·그리스·이스라엘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민중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정치와 정당에 대한 비판에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경제위기 자체는 물론 정부의 반응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반영됐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안철수 현상이 나오고 경제 위기 때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권이 최근 거액의 이득을 가지고 배당잔치를 벌이는 것에 비판적 여론이 일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기대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월가의 시위, 정치권이든 경제계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변호사·전 광주도검장〉

컴퓨터·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으로 목디스크 예방해야

필자는 업무의 특성상 직장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다. 요즘엔 일이 많아 실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고개를 쭉힐 새가 없다. 필자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회사원들의 상황이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는 목이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했다. 일상 생활이 불편할 만큼 목이 잘 안 돌아가고 통증도 자꾸 점점 어깨 쪽으로 내려왔다. 결국 목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 병원을 찾았

더니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목뼈는 C자형인데, 일자로 뻗어버린 꼴이 있다는 것이었다.

거북이처럼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귀에서 내린 선이 어깨 중간보다 2.5cm 이상 앞으로 빠져 있으면 거북목 증후군으로 진단한다는 얘기였다.

최근 필자와 같은 증상을 앓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컴퓨터나 휴대전화 사용이 많은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생겨서 정형외과를 찾고 있다.

증상이 계속 되면 목에 부담이 더해져 치료에 어려운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처음엔 목만 아프다가 통증이 점점 어깨와 팔로 진행되고 목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어느 누구라도 컴퓨터를 떠나서

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하지만, 컴퓨터로 인한 사소한 습관도 쌓이면 병이 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땀 눈높이에 맞춰서 쓰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직장인들이 명심하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기철·광주시 서구 농성2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건팀 2200-697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